

대행 스님



#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백종 천도재를 올려야 하는지**

**질문** 조상님 천도재를 몇 차례 지냈는데도 해마다 촛불재니 백종 천도재를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이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이 공부 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 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림 · 최주현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유전, 인과, 업보성 등의 문제**

**질문** 큰스님께서는 유전성, 인과성, 업보성 등의 문제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인간에게는, 즉 내 몸속에는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그냥 세계가 살고 있어요. 세계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 소굴에서 뱀들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랬다면,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또 영계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 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막 뛰어놀고 온통 집안을 다 흔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들 안 나가는 것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